

백범(白凡) 55주기 추모식

6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서



白凡 金九先生 서거 55주기 추모식이 6월 26일(土) 오전 10시 용산구 白凡기념관에서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회장 金信)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주선 국가보훈처장, 김우전 광복회장, 문재인 청와대시민사회수석과 천정배 열린우리당대표, 김덕룡 한나라당원내대표, 한화갑새천년민주당대표, 김학원 자유민주

연합대표등 당대표와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고, 광복회원 유가족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장의 식사, 국회의장과 보훈처장의 추모사, 3.1 여성동지회의 숙명여대 합창단의 김구선생 추모가, 헌화, 분향순서로 진행되었다. 백범은 18세때 성균관에, 26세에 성균관박사가 됐다. 해방후에는 성균관대학교 육성회장을 지냈다. 이날 우리 안동김씨 대종회에서는 金泰麟회장을 비롯하여 익원공파 永會회장, 榮煥감사, 命會전사무총장, 聖會전부회장, 洙栢전익원공파회장, 滿吉익원공파사무국장과 仁鐘, 규회, 在起, 觀默사무총장 등 많은 현종이 참여하였다.

고려 송의전 참배

지난 5월 19일 璚會 명예회장과 泰麟 회장이 命會 전사무총장의 안내로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고려송의전을 찾아 참배하였다.



송의전은 고려 16공신을 배향한 곳으로서, 우리 중시조이신 종열공 휘 방경 할아버지께서 배향된 곳이다.

찬회 명예회장과 태인 회장은 처음으로 할아버지 영전에 잔을 올리고, 후손으로서 위대한 할아버지 위패에 감격스러워 했으며 자손으로서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백범선생
분향통곡

울고 다시 읍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가셨는데 무슨 말씀하오리까. 우리들은 다만 통곡할 뿐입니다.

울고, 다시 울고, 눈물밖에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하늘이 선생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이 민족을 구원하라 하심이, 74년의 일생을 통하여 다만 고난과 핍박밖에 없습니다. 청춘도 명예도 영화·안락도 다 버리고 만 리 해외로 떠나시면서, 오직 일편단심 조국광복만을 위하여 살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일생 행적을 헤아려 보면 오늘날의 민족해방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요, 역대의 충의의 피를 흘린 모든 의인열사와 함께 거기 선생님의 지대한 공로가 있었음을 부인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검은 머리로 고국을 떠나셨다가 머리에 백발을 이고 옛 땅을 찾아오시던 그날, 기쁨이 얼굴에 가득 차고 춤을 추시는 듯 좋아하시던 그 모양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리요. 조국의 강토는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의 조류는 좌우로 분열된 채 동족상잔이 나날이 치열하고, 전도의 광명이 각각으로 희박해 가되 그럴수록, 선생

님은 국토통일과 완전자주 이것만을 위하여 혀가 닳도록 절규하였고, 나물국 한 그릇에 쓴 김치 한 그릇으로 국민최저생활을 몸소 맛보시며 지냈습니다.

선생님의 고난일생 지서일념 이러했거늘, 마지막에 원수 아닌 동족의 손에 피를 뿜고 가시다니요. 그래 이것이 선생님에게 바친 최후에 보답입니까. 동포형제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십시오. 선생님에게 드릴 선물이 이것밖에 없는데까. 선생님! 선생님! 민족을 걱정하시던 선생님의 얼굴을 아침마다 뵈웠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어디 가서 그 얼굴을 뵈오리까. 선생님은 가신대도 우리는 선생님을 붙들고 보내고 싶지 아니합니다.

남은 우리들은 목자 잃은 양떼와 같습니다. 이런 민족을 버리고 차마 가실 수가 있습니까. 천지가 캄캄하고 강산이 적막합니다.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우리 가슴을 채우고도 넘쳐 흘러 파도 같이 출렁거립니다. 여기 千言萬語가 모두가 부질없습니다. 선생님은 가셨는데 무슨 말씀하오리까. 우리들은 다만 통곡할 뿐입니다. 울고·울

고, 다시 울고, 울음밖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여기 잠깐 우리들은 “月印千江”이란 말을 생각합니다. 다시금 헤아려 보면 선생님은 결코 가시지 않았습니까. 삼천만 동포의 가슴마다에 계십니다. 몸은 무상하여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의 낙원에 가셨을 것이로되, 그 뜻과 정신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길이길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대마다에 새싹이 돋고 새엄이 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고난과중에 일생을 보내신 선생님이 결코 헛되이 그냥 가실 리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민족의 大統一·대화평·자유민주에 의한 새 역사의 첫 페이지는 열릴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선생님의 끼치신 뜻을 받들어 선생님의 발자국을 따라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을 위하여 살으로써, 선생님의 신도 되었던 아

대한민국 31년(1949년)
7월 5일 분향통곡

1949년 7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백범 김구 선생 국민장 영결식에서 한독당을 대표하여 엄항섭(嚴恒燮)이 낭독한 추도문.

* 엄항섭(嚴恒燮, 1898~1962): 3.1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과 임시정부 비서관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의 선전부장 및 주석판공비서로 임시정부의 대외업무를 주도하였다. 1945년 임정요인의 제1진으로 한국, 백범 김구 선생을 보좌하여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평생회비

20만원: 재기(익) 서울 동작구

찬조금(2004. 5. 14~7. 12)

12만원: 병환(부)
 10만원: 성희(익), 은식(안), 무명 1
 5만원: 병국(익), 용해(익), 승희(전)
 3만원: 동희(익), 한준(문), 선옥(익), 용순(안)

계: 690,000

통상회비(2004. 5. 14~7. 12)

5만원: 세용(익)
 3만원: 홍식(익), 용우(전), 규영(제),

수돈(익)

2만5천원: 태홍(제)
 2만원: 영준(안), 재은(전), 재환(익), 홍희(전) 재경(군), 수인(익), 선진(안), 기호(부) 태성(안), 재용(익), 효성(익), 재복(안), 태호(익), 태준(안), 수일(부), 재득(안) 원일(익), 영희(안), 상필(제), 무명 1
 1만원: 수학(익), 봉희(익), 성희(익), 영돈(익) 재선(익), 병주(개), 재운(군), 용득(익), 태욱(안)

계: 685,000

*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古事成語 井·中·之·蛙

井: 우물 정 / 中: 가운데 중 / 之: 갈지 / 蛙: 개구리 와 / 원말: 정중와부지대해(井中蛙不知大海) 준말: 정와(井蛙) / 출전: 後漢書 馬援傳, 壯者 秋水篇

①王莽이 前漢을 멸하고 세운 新나라 말경, 馬援이란 인재가 있었다. 그는 관리가 된 세 형과는 달리 고향에서 조상의 묘를 지키다가 농서(現 甘肅省)에 웅거하는 외효의 부하가 되었다. 그 무렵, 公孫述은 蜀 땅에 成 나라를 세우고 황제를 僭稱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외효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마원을

보냈다. 마원은 고향 친구인 공손술이 반가이 맞아주리라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공손술은 계단 아래 무장한 군사들을 도열시켜 놓고 위압적인 자세로 마원을 맞았다.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옛 정을 생각해 자네를 장군에 임명할까 하는데, 어떤가?”

마원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천하의 雄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공손술은 예를 다하여 천하의 인재를 맞으려 하지 않고 허세만 부리고 있구나. 이런 자가 어찌 천하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외효는 공손술과 손잡을 생각을 버리고 훗날 後漢의 시조가 된 광무제(光武帝 25~27)와 수호하게 되었다.

②정중지와란 말은 壯者 秋水篇에도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北海의 海神인 若이 黃河의 河神인 河伯에게 말했다.

“우물만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가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구애하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가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름 한 철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일밖에 모르는 사람과 道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배운 것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3회 안사연 여름캠프 행사 안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증평·괴산군 일대에서

안사연에서는 <제3회 여름캠프> 행사를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청원군 오창면 일대와 증평군과 괴산군 일대에서 실시한다. 이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라나는 청소년 자녀들과 동행하여 선조님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관련 역사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화산군 영정봉안

2004년 7월 11일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화산군 재실에서 화산군(金澍) 영정 봉안식이 있었다. 화산군은 안렴사

공의 7대손이다. 이 자리에는 안렴사공과 在澤회장을 비롯하여 會潤, 在均 종친과 화산군종회 泰永회장등 40여명 후손들이 참석하여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사진촬영에 발용(郡), 기록에 주회(按) 종친이 수고하였다. 영정은 약2개월에 걸쳐 僻海 金松培 화백이 맡았다. 金화백은 1971년 종렬공 文武영정을 그린 화백으로 우리 종회와는 깊은 인연이 있다. 이어 봉안식을 마치고 김화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종친일행은 귀백리의 선조 묘소를 참배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써 선조님들에 대한 숭조의식을 재정립하고 문중의 역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계승과 전수의식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실시되고 있다. 본 행사는 현재 3회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로 제학공파와 안렴사공파 선조님들의 묘소와 관련한 주요 문중 역사 유적지 탐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제1회는 안동과 경북 의성에서 종렬공 묘소와 사촌의 도평의공파 집성촌을, 제2회는 안동과 포항에서 상락대와 상서공 친필 비석 탐방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바 있는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더욱 발전해 가고 있다. 안사연에서는 이 행사에 더욱 많은 종친 여러분이 참여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석 희망자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1. 일시 : 2004. 8. 1(일) ~ 8. 3까지

2박 3일

박 도로 집합

제2 집결지 : 12:00시.

2. 장소

1)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일대: 안렴사공 묘소, 송천서원

2)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일대: 10

위의 묘소 참배, 안렴사공파,

제학공파 집성촌, 충민사, 취

묵당, 문중 납골당 등 역사

유적지 탐방.

3) 충북 괴산군 칠성면, 청천면

일대: 김기응고가, 쌍곡계곡

및 명승지, 김시약 장군 정려

문과 묘소, 김사암과 북적비

3. 대상 : 안동김씨 제위

4. 특전

1)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 유익하게 활용토록 함.

2) 초중고 학생들에게 백일장,

퀴즈대회, 컴퓨터 게임대회, 보

물찾기 등의 실시와 상장 및 상

품 수여

5. 제1 집결지 : 2004. 8. 1일.

09:00시. 증평고속도로 증평IC

기사 제공자

향홍(提) (khy5278@chollian.net

011-892-5273)

1) 시사명(視思明) : 볼때는 밝게보기를 생각하라
편견을 가지고 밖에 나타나는 것만을 보지말고 깊이있게 보라.

2) 청사종(聽思聰) : 들을때는 똑똑하게 들기를 생각하라 그말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총명한 지혜로 알아들어야 한다.

3) 색

사온(色

思溫) :

얼 굴 빛

은 온화

하게 가

지기를 생각하라. 항상 고요하고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

4) 모사공(貌思恭) : 태도는 공손하게 하기를 생각하라.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꾸미며 건방지다는 말을 듣게되고 사람대접을 받지못하게된다.

5) 언사중(言思忠) : 말은 참되기를 생각하라 한마

디도 헛된말을 하면 사람이 경망하고 부실해진다.

6) 사사경(事思敬) : 무슨 일을 할때는 공경하기를 생각하라. 어른을 섬긴다면서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7) 의사문(疑思問) : 의심스러울때는 물기를 생각하라. 묻는 부끄러움보다 모르는 부끄러움이 더 큰 것이다.

8) 분

사난(盆

思難) :

분 할 때

는 곤란

하게 될 것을 생각하라. 성난마음을 달래지못하고 그대로분출하면 어려운결과가 생길 것이다.

9) 건득사의(見得思讓) : 이득이 생기면 의리를 생각하라. 재물이나 명예나 무엇이든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옳은가를 먼저생각해야 한다.

예절은 정갈하고 우아한 멋과 품격을 선사한다 구사(九思)의 바른 마음가짐

만물의 연장인 인류가 금수와 다른 것은 윤리와 도덕과 예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부부에서 시작되며 역시 우주 생명 질서가 모두 가정에서 부모들의 자녀 교화에 시작된다. 중용에서 '君子之道는 造端乎夫婦'라 하였으니 부부는 인륜의 지친으로서 매사가 그 가운데서 성립한다.

부부가 있는 후에 자녀가 있으니 夫唱婦隨하고 父慈子孝하고, 婦有三從之道하니 在家從父하고 適人從夫하고 夫死從子하는 교육이 곧 가정 윤리의 시초요 天地之常經이요 고금의 도의인 것이다. 또 易에서 말하길 "乾道成男하고 坤道成女"하니 乾坤의 변화요 만물의 생령에 進退

消長하고 그 가운데서 인류가 대업을 이루며 三綱五倫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대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가통이 승계되

고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며 자

자손손 계승하

여 전해짐이 지

금까지 4천여

년에 이르니 세계 각 국에서 우리나라를 일러 東方禮義之國이라 칭한다. 근래에 서구풍조가 팽배하여 호주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오천년 전

통의 典法을 파괴하고 선조를 욕보이고 자손에 누가 되는 것으로 여성유림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필자는 유림들이

호주제 폐지를 철

회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이유로

투쟁한다고 생각

한다.

첫째 가정에서

부터 삼강오륜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둘째, 가족의 체계와 정통이 무너져 業祖敦族

하는 미풍양속이 일조에 소멸돼 우리의 풍속이 夷狄와 禽獸 같이 될 것이다.

셋째, 선조들이 쌓아놓은 동방예의지국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의 근본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자손을 선도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는가.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도덕과 윤리가 바로 잡혀야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유림이 일제히 결기해 호주제를 지키고 도덕을 바로 세워야 孔孟의 도학을 지키고 국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초석을 세울 수 있다.

戶主制 廢止,
女性 입장에서 이해 안돼
崔香子 <강릉 여성유림>

전통 제례법과 창출법 연수 실시

지난 5월 23일 대종회 사무실... 26명 종친 참석

대종회에서는 지난 5월 23일 (일) 10시부터 1시까지 대종회 사무실에서 <제1회 전통 제례법 및 창출법 연수> 행사를 가졌다. 경향 각지에서 26명의 종친여러분이 참석하였는데, 괴산의 학음 문영공파종회장, 청주의 영목 제학공파종회장, 구

파), 10명의 안사연여러분, 기타 젊은 종친 여러분 등 대체로 청장년층이 많이 참석하여 뜻있는 연수가 되었다.

이 연수회에서 제1연사인 恒鏞(제) 종친은 먼저 <전통 祭禮儀式 考察 및 안동 享祀의 발전방안 모색>이란 주제 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발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참석한 상호간의 간략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대종회에서는 이 날 제안된 발전적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어 제2연사인 雲起(제) 종친으로부터 창출법 연수가 있었다. 먼저 출가에 대한 종합해설에 이어 연사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후창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석한 여러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 연수는 앞으로 각종 향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대종회에서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이런 연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참석자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리의 수진 정의공파종회장, 영음 밀직사사공파종회장, 그리고 전 명회 대종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으며, 3명의 각 파 총무단(의원공파, 서운관정공파, 정의공

우리나라 예학(禮學)의 연원과 그 발전과정을 文獻史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현재 봉행되고 있는 안동 능동의 종렬공과 회곡동의 냉평국대부인 향사 祭禮儀式이 주 권전에

한국 가족제도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의 전통문화!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민족말살책략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 1) 호주제가 폐지되면 후손들의 姓과 本은 각양각색 달라지고, 친족은 남이되며 조상과도 단절된다.
- 2) 친양자제 실시되면 재혼하여 의붓아버지는 친생부로

날조되고 3촌하면 친생부도 또 바뀐다.

- 3) 家系繼承없어지면 族譜 先山 祭祀는 유물로 남게되고 반만년 배달민족 금수로 전락한다.

◆ 남성역차별하는 여성부를 폐지하라!!

◆ 정부는 정통가족제도를 말살하려는 사회주의 가족제도 도입책들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 정통가족제도 수호를 헌법에 명시하라!!! 국민이여! 정통가족 수호를 위하여 총궐기합시다.



술이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화합케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술자리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과음한 다음날 아침은 머리가 아프며 속이 울렁거리고 심하면 토하기도 한다. 이런 일시적인 괴로움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음주는 간이나 위장에 손상을 주고 알콜중독에까지 이르게 해 인성의 변화를 초래한다. 적당함 음주는 중풍을 줄이고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음주에 대한 어느 정도 관대한 마음을 갖게 했지만 최근 발표에 의하면 소량의 음주로도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간 술을 마시면 뇌가 쪼그라든다고 한다. 따라서 알콜중독에서 종종 보이는 인성의 변화는 뇌의 기질적 변화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술에 상하면 땀을 내거나 소변을 잘 보게 하면 낫다고 하였다. 술은 마신 뒤 가볍게 샤워나 사우나를 해서 땀을 뺀다는 방법은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오랜 시간 뜨거운 곳에서 땀을 빼거나 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가벼운 반신욕으로 땀을 빼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밀폐된 고온의 찜질방 등에서 잠자는 것을 삼가야 한다. 보리차나 생수 등으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수분의 섭취는 탈수를 막고 소변을 자주 보게 하여 알콜의 처리를 빠르게 해준다. 술을 마신 다음날엔 콩나물국, 북어국 등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식혜나 꿀물, 과일쥬스, 이온음료 등을 마셔 부족한 수분과 당분, 비타민, 전해질 등을 보충해야 한다. 해장술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 들어간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의 처리 과정을 일시적으로 막아 불쾌감을 못 느끼게 할뿐이다. 해장술은 간에 부담을 가

건강상식
인간세계와 술
권혁천/산본한의원 원장

안사연의 원주 영원산성 등반 및 산성제 봉행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일) 자체 연중 산행 계획(매월 2째 일요일, 현8회)에 의거하여 원주의 영원산성을 등반하고 임진왜란때 이곳 산성에서 장렬하게 순국하신 문숙공(휘 梯甲) 선조님의 충절과 그 가족의 효·열정신을 기리는 산성제를 올렸다. 총 41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원주의 향토사학자인 김호길 교수와 양근열 시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고, 13명의 안사연, 8명의 문숙공 후손 및 괴산지역 종친, 7명의 제천·단양지역 종친, 5명의 원주지역 종친, 2명의 대구지역 종친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3명의 부산지역 종친들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새벽에 출발하여 오기도 하였다.

09:30분 원주역전에 집결한 일행은 먼저 <문숙공 김제갑 충렬비(文肅公金梯甲忠烈碑-1670(현종 11년) 건립)>와 <충렬탑(忠烈塔-1966년 강원도 애국유족부활위원회 건립)>에 모여 묵념을 하고 김호길 교수로부터 문숙공의 순절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의의, 그 동안의 선양사업과정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이어 9대의 차량에 분승한 일행은 영원산성에 올라 간소한 제수를 차리고 산성제

를 올렸다(조현-鶴應, 아현-大浩, 종현-榮銑, 독축-恒鏞) 이어 문숙공 후손들께서(榮銑, 盛銑) 제공한 도시락으로 맛있고 감사한 중식을 하고 난 뒤 원주종친회에서 준비한 천막과 환영 현수막 아래에서 상호 인사 소개, 학음 문영공파종회장의 인사말씀, 전 원주대학 학장이며 현 원주지역 종친회장이신 대호 종친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문



숙공 현양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안사연의 항용(제) 종친으로부터 준비된 자료인 <문숙공과 충효열의 영원산성>이란 주제의 해설과 문숙공 현양사업의 구체적 과제와 몇 가지 역사 자료 발표 등이 이어졌다.

그 뒤 약 1시간에 걸쳐 험준한 산성위로 올라가 임란 당시의 격전지인 산성 현장을 답사한 일행은 매년 특정일을 정하여 정기 산행 겸 산성제를 올리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날 恒鏞(제) 종친은 작년에 발견한 문숙공의 친필 서찰 복사본을, 相錫(제) 종친은 기념타올 및 우의를 기념품으로 배부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중시키고 알콜중독에 빠질 위험성을 높인다. 구토는 자연스런 인체의 방어행위이므로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다. 보통 음주 후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최소 72시간이 걸리므로 3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마셔야 한다. 술은 약한 술부터 독한 술의 순서로 먹는 것이 좋고 안주와 함께 먹어야 하는데 치즈, 두부, 고기, 생선(등)과 단백질 음식이 간세포 재생, 알콜 배출 대사효소 활성화에 좋다. 음주 후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손상을 받아서 그런 것이므로 한두 번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면 이미 뇌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으로 보고 술을 자제해야 한다.

〈山城祭文〉(文肅公 諱 金悌甲 追慕 鵠原山城 祭文)

단군기원 4337년 5월 16일에 이곳 영원산성에 모인 초현관(鶴應), 아현관(大浩), 종현관(榮錄)과 추모단 일등은 증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행 통정대부 수충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肅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 師 行 通政大夫 守忠清道 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이신 문숙공께 삼가 고하옵나이다.

우금(于今)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에 이곳 영원산성에서 우리 강토를 수호하기 위해 원주목사로서 혈전 분투하시다가 장렬하게 순국(殉國)하신 문숙공이시여!

공께서는 일찍이 신라의 왕손이시고 고려왕실의 외손인 안동김문의 후손이시며, 고려조의 출장입상(出將入相)으로 이름 높으신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 충렬공(忠烈公) 휘 김방경(諱 金方慶)의 11대손으로서 조선조 중기의 명문가였던 괴산의 오갑(五甲) 명현(名賢) 중 넷째로 출생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이신 공께서는 안동의 퇴계선생 문하(門下)에서 수학하셨으며, 29세(1553.명종8)에 문과에 급제하시어 홍문관 정자, 병조좌랑, 육

천군수, 남양부사를 거쳐 정언이 되셨습니다.

57세(1578.선조11)에는 당상에 오르시어 공마관압사(貢馬管押使)로 연경(燕京)에 다녀오셨으며 이때 명나라 신종황제(神宗皇帝)로부터 말과 비단과 상아를 하사받기도 하셨습니다.

58세(1579.선조12)에는 해주와 진주의 목사, 예조참의, 대사간, 충청·황해 감사를 거쳐 좌승지에 오르셨습니다. 그 후 창성부사를 거쳐 67세(1591.선조24)에는 원주목사로 부임하셨고 그 이듬해에는 우리 민족사의 최대 시련이요 비극이었던 임진왜란을 만나 바로 이곳 영원산성에서 그 비통의 혈전을 맞게 되셨습니다.

이 때를 당하여 평소 충(忠)과 의(義)를 목숨처럼 아끼셨던 공께서는 관동지방으로부터 서울을 향해 파죽지세로 이 땅을 유린해 오는 왜적 앞에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공께서는 아군의 열악한 전투태세와 패전의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이속(吏屬)들과 민간인, 피난민, 노약자들을 불러모아 충의(忠義)를 깨우치고 감화시켜 이곳 천혜의 영원산성에서 수성계획을 세우고 전투준비에 임하셨습니다.

1592년 8월 25일, 드디어 벌어진 왜적과의 전투는 중과부적(寡寡不敵)의 열세로

인해 불행하게도 패전으로 기울어갔습니다. 그러나 공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굴하지 않고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화살을 쏘며 당당히 왜적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께서는 참혹하게도 왜적에게 목이 베이는 비극을 당하셨습니다. 이어 정경부인(貞敬夫人 全州李氏)께서도 자결(自決)하셨고, 차자(次子) 참의공(參議公 諱 金時伯)께서도 부친의 시신을 붙들고 최후까지 싸우시다가 몸과 머리가 나뉘는 슬픔이 바로 이곳 산성에서 있었사옵나이다.

충·효·열(忠孝烈)의 참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문숙공이시여!님과 가족들의 그 날 그 피의 절규소리가 지금 이곳 산성 어디선가에서 들려오고 있는 듯하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바른 삶을 일깨워주신님이시여!님은 가셨어도님의 발자취와 정신은 오늘날까지이민족 모든이의 가슴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임하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인

“나는 죽기로 결정하였다. 살아도 나라와 살고 죽어도 나라와 죽을 것이니 시간이나 끝में 살기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마땅히 험한 곳을 질러 막아 힘을 다하여 항거하다가 하늘의 덕으로 적의

칼날을 꺾을 수 있다면 다행이요, 만일 불행하면 오직 나라를 위한 죽음이 있을 뿐이니 오히려 사사로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한가?”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가신지 41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피로써 지켜온 평화로운 이 땅에서 개인적인 안일(安逸)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열중하면서도 이 산성의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는 점점 잊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굶어 살피고 계신 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무지와 불민(不敏), 불효와 무성의로 인해 이루지 못했던 님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현양사업들인 정기산행제, 학술발표회, 평전(評傳) 발간 및 국역 의재유고 재발간, 묘역과 원주 충렬비 주변 정화사업, 기념관과 정려각(旌閭閣) 건립 등의 사업이 오늘 이 산성제를 시작으로 크게 일어나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민족이 겨레의 위대한 내일이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크고 한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삼가 맑은 술과 간소한 제수를 올리오니 강림하시어 흠향하시옵소서

2004년 5월 16일

文肅公 16世孫 恒鏞 奉撰, 奉讀

대구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安東金氏 大邱宗親會 第二四回 定期總會

2004. 5. 9 왕실관광호텔 무궁화홀



알·립·니·다

本大宗會의 회보 편집위원이었던 김태위 종친의 본인 원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부로 편집위원직을 해촉 합니다.

2004년 7월 1일 安東金氏 大宗會 命

지난 5월 9일 황실관광호텔에서 제24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회장의 有故로 인하여 泰和부회장의 주관으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회의에 앞서 대종회에서 宗會發展에 공이 큰 10대회장 潤天(泰) 11대회

장 浩吉(在) 前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어 대구종회에서 10대, 11대 前회장에게 종인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북북부지역 종친회(안동, 예천, 문경) 회장 鳳洙, 안동종친회 成植회장, 대종회 觀默사무총장이 참석하

였고 특히 대구지방경찰청장 金大植(泰) 종친이 참석하여 高價의 기념품까지 마련해 주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金植청장년회장으로부터 청장년회원들의 활동사항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모든 會議을 마쳤다.

향 전 원 예

대표 김재균

(경조화환 / 화분)

전화: 783-3166, 783-3167, 780-8477

팩스: 312-3040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16-72

서소문 꽃시장 내 C-72

韓國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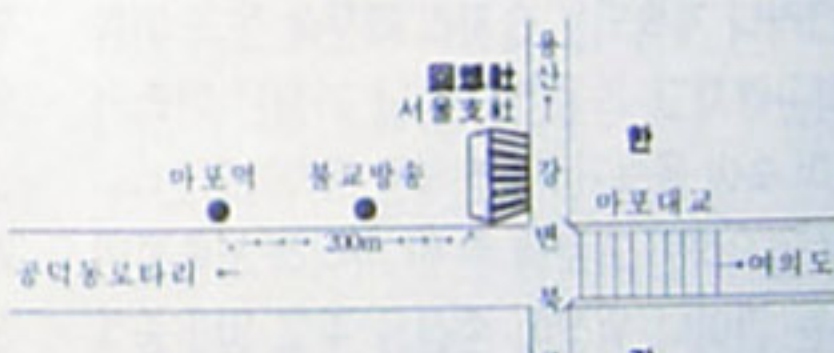
回想社 6大 特徵

1. 創立 47年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로 迅速, 正確한 電子組版으로, 族譜 出版界의 一大革新
3. 春田體(漢文 47,163字)開發 및 族譜프로그램으로 모든 辭字 完全解決
4. 編輯, 淨書, 出版, 印刷, 製冊등 모든 工程을 同一工場에서 一貫作業을 할 수 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5. 原稿에 誤謬가 있을시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練한 技能者 多數 確保.
6. 1,000餘坪 以上の 넓은 倉庫를 順快完了때 까지 無料로 便宜提供.

* 컴퓨터만 있으면 索引을 통하여 派, 世, 代를 檢索할 수 있는 CD를 製作하여 드립니다. (既 發刊된 族譜도 CD製作)

回想社 서울支社 移轉

서울地域에서 族譜編輯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아늑하고 快適한 곳으로 移轉하여 各 門中の 收單, 淨書, 編輯,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저 하오니 많은 聲援과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支社 略圖

※지하철 5호선 마포역 하차 4번 출입구로 나오셔서 마포대교 옆 강변한신코아 1412호입니다.

族譜, 古書 回想社 出版, 製冊

본사: 大田廣域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 ~ 3 Fax (042) 253-9891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번지

지사: 강변 한신코아 오피스텔 1412호

전화 (02) 718-9881 Fax (02) 718-9882